

# 근대계몽기 여행서사의 환상과 제국주의 사이

— 이시벨라 버드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중심으로 —

홍순애\*

1. 서론
2. 제국의 의도된 기록과 유토피아적 전망
3. 차이화를 통한 제국적 패러다임의 합법화
4. 결론 : 조선, 기록을 통한 제국적 영역으로의 전유

## 국문요약

본고는 근대계몽기 비숍의 여행기를 중심으로 여행자의 시선에 내재되어 있는 지리적 상상력과 제국주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상체계를 논의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인식론적 배치를 규명하고자 했다. 타지화를 통해 재현되는 조선은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제국에 포섭되어야 할 영역으로 서술되며, 제국주의자의 의식분열의 공간으로 재현된다. 서사는 제국주의자의 시선이 내면화된 풍경묘사와 자원개발의 필요성, 영토개발의 잠재성을 요구하는 묘사를 통해 조선의 ‘문명화된 미래상’을 제시하며, 제국주의적 임무가 완수되었을 때의 유토피아적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제국적 패러다임의 합법화를 표면화 한다.

또한 차이화를 통해 인종과 민족, 성적 정체성을 재규정함으로써 제국의 남성성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제국적 헤게모니를 강화한다. 조선 민족의 ‘허약하고’, ‘게으른’ 이미지는 ‘영국남상’의 표상으로 전치되며 제국의 정치적 개입의 정당성을 역설한다. 그리고 조선여성의 성적 정체성의 측면을 가부장제에 의한 제도의 문제로 설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제국주의의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즉, 제국의 시선으로 조감된 조선여성의 삶을 통해 제국의 인도주의적 측면이 부각되고, 그럼으로써 좀 더 논리적이고 전략화된 제국주의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여행기는 유럽식 식민정책의 다층적인 위계화를 과정을 보여주면서 제국적 사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여행서사, 제국주의, 표상체계, 패러다임, 합법화, 헤게모니, 차이화, 인종, 성적 정체성)

\* 서울대학교 포닥연구원

## 1. 서론

본고는 근대계몽기 외국인의 여행서사를 중심으로 여행자들의 시선에 내재되어 있는 지리적 상상력과 제국주의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국적 글쓰기의 서술방식과 전략에 내재된 인식론적 배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근대계몽기 타자의 시선으로 서술된 여행서사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이국적 풍경으로 조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리엔탈리즘에 근거한 제국주의의 시선으로 조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행서사는 시선주체의 인식이 투사되는 담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식민담론의 역학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동양을 여행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지, 정치적 지배, 정치적 한계의 영역을 여행”<sup>1)</sup>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것처럼, 1880년대 서양 강대국에 의해 개방된 조선은 여행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조선 여행기는 1880년대부터 선교사, 기자, 민속학자, 문학자, 정치가 등에 의해 쓰여 졌고, 여행지역도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제물포, 경기 북부, 금강산, 평양, 백두산, 원산 등 전방위적으로 넓게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여행기는 선교사들의 전도 보고서 형식으로, 식민지를 개발하기 위한 탐사와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쓰여지기도 했고, 단순하게는 호랑이를 사냥한 경험에 대해 소개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근대계몽기 조선을 처음 소개하고 있는 책자는 W.E 그리피스가 1882년 간행한 『은자의 나라 한국』이다. 이 책에서 그리피스는 고대·중세사, 정치와 사회, 근대·현대사 등 3부로 나누어 조선의 역사와 문화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1906년에 8판이 인쇄 될 정도로 많이 팔렸지만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일본의 책들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

1)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317쪽.

하고 있다. 이후 직접 조선을 방문한 영국의 정치가 G.N 커즌의 『극동의 문제점』(1894), H.B. 할버트의 『대한제국 멸망사』(1906), N.H. 알렌의 『조선견문기』(1908), E. 와그너의 『한국의 아동생활』(1911) 등은 주제별로 조선을 항목화 하여 소개하고 있어 정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sup>2)</sup>

이에 비해 실질적인 여행기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1897)과 백두산을 탐험한 러시아 문호인 N.G. 가린의 『조선! 1898년』(1899), L.H. 언더우드 의 『상투의 나라』(1904), 독일기자가 한라산과 제주도를 여행한 것을 기록한 『한국기행』(1905) 등이 있다.<sup>3)</sup>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영국 왕립지리학회의 최초의 여성 회원이었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여행기인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sup>4)</sup>이다. 이 책은 1898년 1월 런던에서 출간하여 같은 해 뉴욕에서도 출간되었으며, 비숍이 생존해 있을 당시까지 11판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sup>5)</sup> 여기에는 비숍이 1894년 1월에 부산에 도착한 이래 1895년 2월 서울을 떠나기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금강산, 만주, 두만강 국경을 여

2) \*근대개몽기에 출판된 조선에 대한 서양인 기록(내용이 주제별로 항목화 된 책)

이름	국적 직업	체류기간	도서명	출판 년도
에른스트 오페르트	독일 상인	1866, 1868	Ein Verschlossenes Land, Reisen Nach Korea	1880
W.E. 그리피스	미국 학자	-	Corea, The hermit nation I, II, III	1882
W.R. 칼스	미국선교사	1884-1885	Life in Corea.	
G.N. 커즌	영국정치가	1887-88 1892-93	Problems of the far East	1894
막스 폰 브란트	독일외교관	1897	Ostasiatische fragen : China. Japan. Korea	1897
A.H. 새비지 랜도어		1890-1891	Corea or Cho-sen :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H.B. 할버트	미국	1876-1891	The Passing of Korea	1906
H.N. 알렌	미국외교관		Things Korea- A Collection of Sketches and Anecdotes	1908
E.C 와그너	미국	1904	Chidren of Korea	1911

3) \*근대개몽기에 출판된 조선에 대한 서양인 기록(여행기 형식으로 쓰여진 책)

행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이름	국적, 직업	체류 시기	도서명	출판 년도
바실 홀	영국 해군	1817(동해안 항해)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st, and The Great Loo-choo Island	1818
N.M 프르제발스키	러시아군인, 지리학자	1867, 1869	Puteshestvie v Ussuriyskom Krae:1867-69	1870
P.M. 델로트케비치	러시아상인	1885, 1886	Delotkevicha na Puti Peshkom iz Seula v Poset cherez Severnuju Koruju : 1885-86	1889
E.J. 카벤디시	영국 장교	1891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1894
이사벨 버드 비숍	영국여행가	1894-97	Korea and Her Neighbours	1897
제임스 게일	미국선교사	1889-1928	Korean Sketches	1898
N.G. 가린	러시아문인	1898	Koreiskie skazki,	1899
L.H. 언더우드	미국 선교사, 의사	1888-1921	Fir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1904
지그프리트 겐테	독일 기자	1891	Korea-Reiseschilderungen	1905
E.G. 캠프	미국선교사	1910	The Face of Manchuria, Korea	1911
아손 그랩스트	스웨덴기자	1904-1905	I Korea : Minnen och studier fran "Morgonstillhetens land"	1912

- 4)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1994.  
비숍여사의 조선의 여행의 경로와 지방은 다음과 같다.  
\*경기일대(1894. 4. 14-5.21) : 서울- 남한산성-마재-여주-청풍-단양-도담-마재-가평-춘천-가평-백기미 마을-마릿재 마을  
\*금강산 여행(1894.5. 21-6. 21, 도보): 마릿개 마을- 단발령(금강산의 서쪽 경계선)-장안사-표훈사-표독암-유점사-장안사-갈룡리-마패령-화천리-중대리-추지령-통천-강원도 해안-홀곡의 시중대-삼일포(관동팔경)-마차동-석왕사-원산-부산-제물포-체푸  
\*만주와 두만강 국경여행(1894. 6.23-1895. 1.5): 체푸- 타쿠항(텐진)-잉쿠의 라오허(요하) 허구-만주-봉천-베이징-엔타이-나가사키-블라디보스톡-르리모르스크-노보키예프-포시만-두만강 국경-만주령 한국인 마을-훈춘-우수리강 동시베리아-블라디보스톡-원산-부산-나가사키-제물포-서울  
\*북부지방 여행(1895. 11. 5-12월 중순) : 서울-서대문-고양-과주-임진-임진강-개성-돌마루 마을-봉산-황주-평양-안주대로-수양리-미륵령-개방-자산-은산-대동강-월포-덕천-혹구리-알일령-무진대-순천-평양-포산-제물포
- 5) 이사벨라 비숍, 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1994, 539쪽.

이 시기 많은 여행기 중에 이 텍스트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특정한 지역만이 아닌 조선 전역을 여행했다는 점, 그리고 단발적인 여행이 아닌 4년의 시간을 두고 여행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여행기들과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비숍의 여행기는 여행주체의 직체험된 경험을 위주로 하여 여행과정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과 현지인들과의 갈등을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고,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선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쓰여진 알렌이나 커즌의 여행기에서처럼 선형적으로 제국주의 시선을 재현하지 않는 것 또한 이 여행서사가 갖는 장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숍이 의도하는 문화상대주의적인 시각은 재현의 과정에서 또는 묘사와 서술을 통해 그 균열의 지점들을 드러내는 바, 본고에서는 이 분열의 지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행자들이 서술하는 여행기에는 풍경을 묘사하고, 그 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재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행자의 시선에 포착된 이미지에 의해 서술됨으로써 전략화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외국인 여행자의 서사에서 표상체계는 재현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낯설음이 전제된 외부의 풍경을 본다는 것은 이것이 갖는 고유한 특성 대신에 시선주체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익명의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행기의 표상체계를 통해 재현됨으로써 여행지 자체는 이데올로기적인 공간으로, 또는 해석공간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표상하는 자와 표상 대상 사이의 위계질서는 다양한 층위로 설정되고, 그럼으로써 이것은 근대계몽기의 풍경을 통찰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숍의 『한국과 이웃나라들』을 중심으로 근대 여행서사의 인식론적인 구조, 그리고 여행기라는 개인의 경험적 서사가 어떻게 대상공간을 균질적인 공간으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외부로서 경계 짓고 있는지 표상체계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묘사, 서술전략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근대계몽기의 이방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되는 조선

의 실체와 제국의 시선에 잠재된 위계질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제국주의를 합법화하기위한 실천의 기제들을 확인하는 장이 될 것이다.

## 2. 제국의 의도된 기록과 유토피아적 전망

영국 여성인 비숍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통해 1894년부터 1897년까지 4년 동안 조선을 여행하면서 일련의 사변과 개혁, 명성왕후 시해 등의 혼란스러웠던 정국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비숍은 서문에서 조선의 여행을 “몽골리안들의 국가와 지리, 그 민족적 특징을 연구해 온 학문적 계획”의 일부로 기획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 말은 이 책이 이국의 낭만적인 풍경을 감상하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는 것과, 조선의 ‘국가와 지리, 민족’을 다시 규정하려는 목적이 이 여행에 전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조선을 국가적인 층위에서 조감하겠다는 것이고, 지리정보를 통해 영토와 국경에 대한 구획을 새로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종의 특성을 구별함으로써 ‘현실’로서 조선을 인식하겠다는 것이며, 자신의 여행기를 통해 조선의 새로운 지도를 제시하겠다는 의지적 표현에 다름이 아니다. 지도는 세속적인 지리적 구조를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시하고, 그럼으로써 토지의 소유나 영유 관계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객관적인 ‘사실’로서 확정<sup>6)</sup>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새로 발견된 땅을 지도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해 자세하게 묘사하는 행위는 새로운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지도는 광범한 탐험을 통해서만 획득 할 수 있었던 지식을 매개하는 매체이며, 이러한 지식은 권력화 되었기 때문이다. 비숍은 여행을 통해 도시자의 담

6) 와키야시 미키오, 정선태 역, 『지도의 상상력』, 산치림, 2006, 103쪽.

론이 포함된 상상의 지도를 만듦으로써 조선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기지의 세계로 전화하려는 의지를 여행서사를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

비숍은 조선을 횡단하면서 겪은 경험들과 가시화되는 풍경들을 통해 조선을 읽어나간다. 그리고 여행자의 시선에 내재된 타자성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서술전략으로 기능한다. 이 여행서사에서 서술되는 타자화의 방식은 여행지의 집과 음식, 생활방식과 관련한 일련의 경험들,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

거대도시이자 수도로서 서울의 위엄을 생각할 때 그 불결함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중략) 더럽고 악취하는 수챗도랑은 때가 꼬질꼬질한 반라의 어린 아이들과 수채의 걸쭉한 점액 속에 뒹굴다 나온 크고 옴이 오른, 눈이 흐릿한 개들의 놀이터이다.(중략) 이 같은 수챗도랑들에 인접해 있는 가옥들은 보통 처마가 깊고 초가지붕이 있는 오두막으로 거리와의 사이에 진흙으로 된 담벼락 외에 아무 것도 없다. 지붕 아래 종이로 된 작은 창문이 사람의 속소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다. 상점들 역시 서울의 인상을 초라하게 느끼게 하는 데 단단히 한몫한다. 대개 서울의 상점에서 내다판 물건들은 다 합해 봐도 미국 돈 6달러 정도에 불과하다.(53쪽)

이방인의 시각으로 묘사된 서울의 골목과 시장의 풍경은 불결함과 고약한 냄새, 초라함으로 표상된다. 시각과 후각으로 감지된 서울의 풍경은 정보적인 측면을 강조한 비개인적인 서술의 방식으로 묘사된다. 문명화가 덜 된 주거환경과 경제성이 없는 시장의 상품들은 자국과 비교되어 서술됨으로써 야만의 전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숍의 여행기에는 이러한 문명과 야만의 위계의 질서 안에서 많은 사물들이 재단된다. 비숍은 여행주체로서 자신의 내부를 주체화 시키려 하지만 그것은 안의 눈으로 밖을 보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로 외부로 뚫으로써 그와 다른 내부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겪는다. 비숍은 조선과 영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차이’를 전제하지 않고, 영국 제국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경제적인

규모의 차이, 문화의 상대성을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써 조선의 낯선 풍경은 개선될 대상으로만 인식된다. 여행지의 새로운 풍경과 경험에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비숍은 그에 동화될 수 없는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한다.

며칠째 잇달아 재난에 시달리고 보니 언젠가는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든 기대가 영영 무망한 것처럼 느껴져 말할 수 없이 쓸쓸했다. 별다른 ‘외국 음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여행자에게 있어 카레국물에 버무린 꿩고기 요리는, 그 훌륭하고 따스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10시간 넘는 추운 여행 후에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기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 날 밤 나는 카레 없이 저녁을 먹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 드디어 나도 늙은 것일까. 그 날 이후로는 아무리 점심으로 찬밥만을 먹었다 해도 저녁 식사만은 카레국물 같은 따뜻한 어떤 것이 없이는 식사할 수 없었다.(387)

비숍은 여행지에서 ‘카레국물’을 먹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카레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여행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여기에서 ‘카레국물’은 여행자가 여행지에서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기표의 역할을 한다.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에 따라 여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여행자가 일상과 비일상을 혼돈하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여행자는 일상의 익숙한 경험을 비일상이 전제된 여행 안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의식의 분열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도에서 비롯된 카레가 미지의 여행지에서 영국의 제국적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음식으로 기억되는 과정은 조선을 횡단하고자 하는 의욕과 동치되고, 이것은 여행의 목적을 추동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태도를 ‘늙은’ 것으로 전치하는 과정은 제국주의적인 인식의 뿌리가 어디까지 인지를 의심하게 하며, 여행주체가 이방인의 영역 내에서 스스로 타자화 되는 방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7) 나병철,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2001, 87쪽.

이러한 타자화를 통해 비숍은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의 국민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타자’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아’의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다. 자아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공고히 하려는 이러한 서술은 조선을 횡단하는 제국주의자의 잠재된 의식을 노출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여행기가 단순히 풍경을 묘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이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됨으로써, 이것은 제국의 신화들과 그 속에서 수렴되는 이데올로기의 결과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비숍은 현지인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과정, 즉 관청의 관리들과 접촉하는 것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현지인들과 동화하기 보다는 스스로 타자화하는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결코 공손하다고 할 수 없는 수행원이 내 단자를 지방관에게 가져갔으며, 매우 거칠게 나를 두 개의 작은 방으로 끌고 갔는데, 한쪽 방에는 관리가 마루에 앉아, 몇 명의 연장자에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는 두 방의 문 사이에 서라고 명을 받았는데, 우리 뒤에 많은 구중들은 우리를 안으로 들어가게 밀어댔다. 나는 절을 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수행원이 행정관에게 장축을 건네주었는데, 그 자신이 불을 붙이는 것은 장축이 너무 길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는 담배를 피웠고 밀러씨는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있었다. 밀러씨는 우린 단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그러자 통명스런 대답이 나왔는데, 마치 대단한 영웅이 그의 심복에게 하는 식으로 말을 시작했고 무례한 평가들이 저들 사이에서 떠돌았다. 우린 공손의 표시로 하는 한국말로 인사를 하고 떠났는데, 어떤 답례도 없었다. (110쪽)

여기에서 비숍은 ‘나’로 서술되며, 관청에서 겪게 되는 일련의 경험들을 묘사하고 있다. 여행자들은 자국에서 파견된 영사들을 통해 외무성으로부터 ‘단자(單子)’라고 불리는 서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으로 각 지방의 관청에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단자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음식과

교통, 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력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그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청에서는 이 제도에 비협조적이었다. 비숍은 단지를 이용하여 관청에 식사와 숙박을 요청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지만 관리들의 목소리를 극대화하거나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관청의 전체적인 특징만을 서술한다. 비숍은 관리들과 교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있으며, 서술에 있어서도 단지 하나의 사건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경험적이고 감각에 기초한 관점주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나’와 ‘타자’의 관계를 관리와 여행자로 국한된다. 이 시기 여행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던 관청과의 관계는 요구하는 자와 요구를 받는 자로만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낯선 경험에서 스스로를 타자화하는 이러한 방식은 ‘나’와 ‘그들’을 구별 짓는 계기가 되고, 이것은 여행자를 내면화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여행자와 여행자를 감독하는 관리라는 권력의 전도된 위치, 즉 관리 당하는 문명국과 관리하는 야만국이라는 전복된 상황은 여행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지점이 되고 있다. 비숍의 이러한 관조적 관점의 서술은 식민지를 조감하는 제국주의자의 헤게모니적 위계화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여행서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서술되는 자연에 관련된 묘사는 여행주체의 인식의 정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여행주체의 시선에 의해 조망되는 풍경은 서술자의 심리를 투영하면서 다양하게 변주된다.

오월의 저물녘에 매료되는 순간, 수만의 꽃나무와 덩굴들, 그리고 봉우리를 여는 꽃망울, 겹겹의 양치식물들이 내쉬는 향긋한 숨결들이, 천국의 향내가 찬 이슬에, 젖은 공기 속에 피어 오르고 있었다. 고요함이 피부에 다가왔고, 실상은 봉우리의 개수가 일만 이천 개가 아니라 일천 이백 개라는 사실을 토대로 해볼 때 드러나는 한국인들의 과정에도 전혀 저항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은회색으로

바래져 가는 저 누런 화강암의 암벽들은 차고 간단한 강철의 초록빛으로 낮게 드리워진 화려한 수풀 위에 군림하듯 솟아 있었다. 그리하여 태양이 가리얏을 즈음에는 보랏빛에서 붉은 빛으로 변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에 미광을 돋우어 내더니 결국 빛나던 산등성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꺼져가는 등불처럼 사라져서 산은 온통 잿빛 죽음의 색조를 머금었다. (166쪽)

여기에서 금강산은 세밀하고도 환상적으로 묘사된다. ‘수많은 꽃들’, ‘천국의 향내’, ‘꽃 봉우리’, ‘고요함’으로 표현되는 이 풍경은 유럽의 정원을 연상하게 하면서 서술자가 유럽여성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풍경은 조선의 영토를 사적인 정원으로 전치시킴으로써 제국주의자가 갖는 식민지의 환상을 대리한다. 자연묘사들은 그 곳에서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금강산은 비습에 의해 태고적부터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거주자가 없는 상태의 미개척지나 처녀지로 묘사된다. 이러한 서술전략은 풍경을 발견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제국주의의 일면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풍경묘사는 비습의 여행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19세기 영국의 여행자들이 식민지를 여행하면서 공통적으로 서술했던 방식이었고, 제국적 헤게모니를 표방하는 묘사의 전략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었다.<sup>8)</sup> 비습은 19세기 중반에

8) 1850년 이후 리빙스톤Livingstone, 버튼Burton, 스펜스Speke, 그랜트Grant, 베이커Baker, 스탠리Stanley, 뒤 쉘뤼De Chaillu 등은 아프리카 내륙을 성공적으로 횡단하며, 주요한 지리적 특성들을 여행기의 형식으로 출판하였고, 이것으로 인해 아프리카 대륙의 여행기가 영국에서 유행하게 되는데, 이 여행기에서 풍경묘사는 대략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관망적이고 파노라마적인 서술을 하고 있으면서 식민지의 개발의 잠재력을 부호화 하는 묘사이다. 두 번째는 사적인 정원을 연상하게 하는 풍경묘사로 환상적인 기법을 통하여 꽃과 나비, 벌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세 번째는 식민지의 지배를 부호화하는 갑(屾)유형의 묘사이다. 이 묘사는 위에서 아래로 시선을 옮기면서 중요한 지리적 발견과 표지들을 부호화한다. 그러면서 유럽지배의 예언적인 시각을 재현하고 있다.

Mary Louise Pratt, *Travel Narrative and Imperialist Vision, Understanding Narrative*, Ohio State U.P. 1994. pp.206-207. 참조.

식민지 개척의 여행서사에서 사용하였던 묘사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일면을 교묘하게 드러내고 있다.

알일령을 내려오는 길을 아주 웅대했다. 그 길은 좋은 물살이 흐르는 넓은 계곡으로 연결되고 계곡의 한쪽 면은 산이 자갈이란 자갈을 모두 쓸어내려 쏟아 부은 것처럼 보였다. 시냇물의 다른 한쪽 면은 비옥한 충적토였다. 대동강의 질인 이 시내를 따라 모래를 씻어 사금을 채취하는 작업이 아주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 작업 중의 일부는 구덩이를 산뜻하게 그 위쪽의 돌과 함께 줄지어 놓아 다른 곳보다 한층 더 세련된 세금 방법을 보여주었다. 하루 8센트가 그 곳의 금 캐는 사람의 평균 수입이었다. (387쪽)

위의 인용문에서는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띠고 있는 여행자의 일면을 보여준다. 비좁은 풍경을 묘사하면서 이것을 자원개발과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다. 농토의 비옥함이나 산림의 풍부함, 광물자원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이 지역이 개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일상의 용어와 지리학적 용어들이 결합되어 서술됨으로써 조선이 ‘개방’된 영토라는 관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행자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복하는 경우가 없다. 조랑말들의 난동에도 마부의 부상에도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고개”를 거침없이 넘고 있으며, “얼핏 보면 분명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험로였으나 실제로 부딪혀 보면 그러저럭 걸어갈 만한 길”(385쪽)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제국의 탐사대를 연상시킨다. 조선을 횡단하는 제국의 여행자는 조선의 자연을 개인의 사적 정원으로 전치시킴으로써, 그리고 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주지시킴으로써 미래의 조선을 상상하고 있다.

시각체계를 통해 재현되는 여행지는 여행주체의 주관적인 관점을 통해 구성된다. 다시 말해 시각으로 감지된 것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이 여행의 목적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풍경이란 실은, 선행하여 존재하는 표현이

의식에 내화되고 반전하여 외부에 투영됨으로써 획득된 것, 말하자면 특수한 시각적 인상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어떤 지각양태에 의해 신출된 것이라는 사실이다.<sup>9)</sup> 시각주체에 의해 지각되는 여행기는 주체가 내재하고 있는 인식의 수준을 언어적으로 재현하는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이것은 주체가 속한 공통체의 기호를 내면화 하는 동시에 이것을 해석한 결과로 나타나는 구성물에 다름이 아니다. 다양한 풍경묘사의 전략들은 비숍이 의식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객관주의적인 관점을 분열시키면서, 제국주의에 포섭된 조선의 유토피아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 3. 차이를 통한 제국적 패러다임의 합법화

비숍의 여행기에서 풍경묘사와 경험이 서술전략을 통해 재현되었다면, 민족과 계급, 성적 정체성에 대한 견해는 하나의 정치적 논리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인다. 제국에서 파견된 학자의 정체성을 가진 비숍은 제국의 체계모니를 충실하게 되받아 쓰기 위해 타자를 ‘차이화differentiation’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제국의 문화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여행지의 세계는 이방인의 시각에 의해 본래적인 모습을 상실한 비교의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근대서구의 문화를 특권적인 규범으로 삼는 입장은 ‘보편주의’ 또는 ‘인간주의’를 내걸면서 인종이나 민족의 서열, 열등한(하위의)문화의 예속, 나아가 스스로를 대표(표상)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대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의 복종을 동반해 왔다.<sup>10)</sup> 미지의 영역에서 지각된 풍경과 그 과정에서 배태된 인식이라는 것은 시선주체, 즉 여행자가 내포하고 있는 선형적인 감각에 의해 표상화 되지만,

9) 이효덕, 박성관 역,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87쪽.

10) 강상중, 이경로·임성모 옮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174쪽.

이것은 여행의 과정에서 다양한 계기를 통해 변용된다. 지각이나 전달의 코드화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에 대해 구성적으로 작동하고 간주관적으로 구성되면서 다른 한편 역사적인 소산이기도 한 ‘역사적 아프리오라’인 이상, 그것은 ‘안정된 구조’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변용에는 역사적인 계기가 틀림없이 존재한다.<sup>11)</sup> 미지의 세계가 기지의 세계로 전화하면서 가상의 공동체는 여행주체의 여행목적에 의해 새롭게 구성되고 인식된다. 비숍 또한 조선인에 대한 인종과 민족, 성적 정체성의 문제를 다양한 층위로 분화시켜 인식하고 있다.

비숍이 여행을 통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조선인의 실체이다. 비숍은 조선인을 여행지의 풍경과는 차별화된 서술의 전략을 통해 재현하면서 제국의 정치적 개입과 관련하여 새롭게 규정한다. 비숍은 여행기에서 조선인의 신체나 천성, 지적인 측면을 우호적으로 묘사한다. 조선민족은 “고상하고 지적”으로 생겼으며, 그래서 “확실히 잘 생긴 종족”이고, “한국인들의 일상적 표현은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활기”차며, “남자들은 힘이 세고”, “대단히 명민하고 똑똑한 민족이다”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녀가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 비숍은 정부의 관리, 농민과 평민, 여성들로 구분하여 계층화 하여 인식하는데,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조선의 정치적 미개함을 이들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모순된 정책과 퇴락한 국가의 표상을 제시하기 위해 차용되면서 제국적 권력의 개입 필연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여행을 시작할 때 비숍에 의해 포착된 조선의 농민과 서민들은 ‘나태하고’, ‘게으르며’, ‘지저분하고’, ‘예절 바르지 않는’, ‘의욕이 없는’ 상태로 묘사된다. “가망 없고, 무력하고 불쌍하고 측은한 어떤 큰 힘에 의해 뿔겨

11) 이효덕, 박성관 역,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174쪽.

다니는 배드민턴공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구절에서 ‘어떤 큰 힘’이라는 것은 서양의 강대국과 일본·중국으로 일컬어지는 주변국가의 정치적 압력과 권력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며, ‘배드민턴 공’은 위태롭게 강대국사이에 끼어있는 조선을 표상한다. 그러나 이 같은 비습의 견해는 동시베리아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이주한 조선인들의 생활상을 목격하고 나서 달라진다.

이곳에서 한국인들은 번창하는 부농이 되었고 근면하고 훌륭한 행실을 하고 우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변해갔다. 이들 역시 한국에 있었으면 똑같이 근면하지 않고 절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만 했다. 이들은 대부분 기근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배고픈 난민들에 불과했었다. 이들의 번영과 보편적인 행동은 한국에 남아있는 민중들이 정직한 정부 밑에서 그들의 생계를 보호받을 수만 있다면 천천히 진정한 의미의 ‘시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에게 주었다. (277쪽)

시베리아의 조선 이주민들이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것을 본 비습은 이들이 ‘난민’에서 ‘시민’으로 격상될 가능성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들은 자신의 농토를 경작하여 부유하게 살고 있고 깨끗한 옷차림과 정갈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인종이나 민족적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지배층의 수탈, 관리들의 비리, 정부의 무능력, 정책의 비효율성 등에 의한 결과라고 말한다. 즉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로 확장되고, 사회·정치·제도에 대한 구조의 문제로 수렴된다. 일례로 비습은 “겨울이 아주 추운 한국의 북부에서 농부들은 수확으로 얼마간의 현금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을 땅 속의 구멍에다 넣고 거기에다 물을 뿌리는데, 관리와 도적들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돈꾸러미는 그렇게 얼려진 땅 속에 묻힌다.”(390쪽)고 하며 관리와 양반들의 수탈로 인해 농부들은 자신이 굶지 않을 만큼만 농

사짓기 때문에 잉여물에 대한 교역이나 경제적인 발전이 차단된 상태라고 언급한다. 그리고 ‘생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 정부의 통치 방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숍은 조선 민족의 본래적인 성격을 탈각시키고 제국의 인종으로 개조된 사례를 시베리아의 조선인 정착민들을 통해 주고 있다.

조선민족에 대한 재규정은 또 다른 표상의 층위에서 기능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국남성’의 남성성이다.

토착조선인의 특징인 의심과 나태한 자부심,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노예근성이, 주체성과 독립심, 아시아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영국인의 것에 가까운 터프한 남자다움으로 변했다(중략) 러시아 정부는 강력한 통치력을 보였으나 그 절대적인 허용범위를 넘어서진 않았고 자그마한 금지와 규정으로 외국인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 또 다른 민족의 자질과 습관에 알맞은 지방자치정부의 형태를 지원해 주었다. 러시아 정부는 시간과 교육, 다른 문명과의 접촉이 이들 이주자들의 관심과 종교와 의상에서 비난받을 만한 것들을 수정해 주리라 믿은 것이다. 그 같은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았다. (278쪽)

‘나태함’, ‘의심’, ‘노예근성’이라는 토착 조선인의 특징과 ‘주체성’과 ‘독립심’, ‘터프한 남자다움’의 영국남성의 표상은 여기에서 부정과 긍정의 기표로 기능한다. 즉, 조선민족은 개혁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고 반대로 ‘영국인 남성’의 인종적 특권은 옹호되고 있다. ‘문명화되지 못한 이들’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것은 ‘문명화된 인종’의 의무<sup>12)</sup>라고 제국주의가 표방하고 있듯이, 이 말은 제국주의가 도덕성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국주의가 갖는 폭력성과 잔인성은 제거되고, 도덕성으로 무

12) 피터 차일즈·페트리 윌리엄스, 김문화 역,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384쪽.

장한 제국의 허상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족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민족이 우열로 구분된다는 이 같은 서술은 조선을 개량해야 한다는 논리를 설득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러시아 정부의 통치력이 인종적인 특징과 민족성까지 개조했다는 이와 같은 견해는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를 통치의 문제, 정치의 문제로 수렴시킨다. 통치 국가의 능력에 의해 인종과 민족적 특징이 변화된다는 이러한 사유는 제국주의의 정당성을 윤리적인 측면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인 문명·야만의 도식과 인종주의적 우·열의 도식은 이 지점에서 접합점을 갖고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도덕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숍은 조선민족이 갖는 도덕성의 문제를 통치 주체의 문제로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여행목적을 합리화 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이 여행기를 통해 재확인되고 있는 셈이며, 따라서 비숍의 여행기는 이러한 인종과 민족의 차이화를 통해 제국주의의 합법화에 기여하고 있다.

유럽의 여성이라는 비숍의 정체성은 조선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한다. 비숍은 다른 남성 여행자들이 피상적으로 묘사한 조선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조선 여성들은 격리된 삶을 살고 있고 “여성의 권리는 적고 그 나머의 권리도 법보다는 관습에 의존한다(397)”는 견해나, “우리는 아내와 결혼하고 첩과 사랑을 나눕니다(397)”라는 조선남성의 발언을 통해 비숍은 조선여성들이 처해있는 가부장제의 폐해를 보여준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강하게 의식하는 반면 남편은 거의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외형적인 존중의 표시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만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면 그녀를 동등한 반려자로 대우한다면 그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중략) 한국의 여성들은 항상 명예를 짊어지고 산다. 그들은 남자와의 차별을 자신의 자연적인 몫으

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결혼에서 애정을 기대하지 않으며 구습을 타파하겠다는 생각은 결코 할 수가 없다. 대개 그들은 시어머니의 지배에 순종하며,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말썽을 일으키는 며느리들은 그들이 아내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한, 심한 매질로 교정되게 된다. (143쪽)

비숍은 조선의 여성들이 ‘멍애’를 짊어지고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언급한다. 조선 남자들의 잘못된 교육과 여성의 문맹, 극히 낮은 법적 권리, “세계의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더 낮은 지위를 여성에게 안겨주고” 있는 조선은 냉혹한 관습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로 각인된다. 비숍은 ‘격리’와 ‘노동’으로 표상된 조선의 여성에 대해, ‘일방적인 척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한다. 그녀는 조선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은 법의 강제력보다는 ‘관습’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 ‘매 맞는 여성’과 ‘간혀 있는 여성’으로 표상된 조선여성은 전근대적 사회의 전형으로 해석된다. 조선사회가 갖는 여성의 억압은 관습으로 포장한 야만의 징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숍의 자신의 정체성인 ‘자유’를 가진 유럽여성이라는 자기재현과 대비된다. 자신의 신체와 성을 지배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여성과 대척점에 있는 전통에 얽매어 있으며 가족 지향적이고, 희생양적인 여성은 서구와 조선을 표상한다.

비숍의 제국주의적인 시각은 가부장제하의 조선여성의 문제를 끌어 들임으로써 성차의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여기에서 유색인 여성과 백인여성의 위계는 여성이라는 성적 정체성으로 동일하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층위의 변수인 식민지와 제국의 층위로 분화되면서 이중성을 띤다. 비숍은 조선여성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동시에 조선의 가부장제의 폐해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여기에서 조선여성의 성적 정체성의 문제는 이것에 대한 제도의 개혁 필요성 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한다는 윤리적인 측면을 또 다시 환기시

키는 역할을 한다. 즉, 제국의 시선으로 조감된 조선여성의 삶을 통해 제국의 인도주의적 측면이 부각되고, 그럼으로써 좀 더 논리적이고 전략화된 제국주의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비숍이 여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남성과 동일한 시선으로 조선 여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성적 정체성보다는 제국적 담론의 위계가 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선에 부치는 마지막 말」의 부분에서 비숍은 그 동안 여행한 것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며 조선을 평가하고 전망한다. 이 부분에서는 그녀가 겪은 4년의 시간들과 변화들을 요약하면서 일본과 러시아가 패권을 다투는 양상에 대해 영국인으로서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리고 비숍은 영국 제국주의의 시각으로 영국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전의 내용에서는 조선 남성과 여성을 동원하여 제국주의의 합법화를 시도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노골적으로 제국주의의 이익에 대해 서술한다.

항상 10%의 비율로 증가하는 관세 세입은 한국 재정의 등뼈이다. 그리고 행정의 능력과 성실함이 감독관들에게 반드시 영국에 호의적인 영향을 주거나, 심지어 타락한 한국 관료주의에 감명을 주는 영향을 끼치는 곳은 어디든지, 이 업무가 우리의 손아귀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실제상으로 가장 중요하다. 일본 패권의 시기에 현재의 협정을 뒤엎으려는 큰 바람이 있었지만, 청장의 요령과 건실함으로 좌절되었다. 다음의 위험은 러시아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위신과 이익에 심한 타격이 될 것이다. 러시아를 지도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선동하고 있다. (521쪽)

개혁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러한 논리는 ‘면허받은 흡혈귀’인 양반계급과 ‘기생충’인 관리들의 횡포에서 서민과 평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당화 된다. 전망 없는 상황 속에서 교육을 통해 그리고 ‘청소작업’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비숍이 이 여행을 통

해 얻은 결론이다. 비숍의 이 여행기에는 다른 여행기와는 달리 자료화하고 수치화한 통계들이 다수 첨부되어 있다. 여기에는 ‘선교단 현황’, ‘무역 현황’, ‘무역항의 관세와 순수 세금 비교 일람표’, ‘수출입 품목’, ‘조약항의 출입선박 통계표’, ‘조약항의 외국인 인구 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들은 조선의 실체를 좀 더 확연히 드러내는 지표가 되면서 제국주의의 개입의 필요성을 대신한다. 이것은 “어떤 지역과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심오한 지식 없이는 그곳의 자원을 개발하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유럽의 식민정책의 일단을 보여준다. 즉 비숍의 여행기는 여행에 대한 정보가 제국적 헤게모니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고 있다.

비숍의 여행기에 재현되고 있는 인종과 민족, 성적 정체성은 제국적 패러다임의 합법화를 위해 동원되고 있다. 미지의 영토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는 그 영토를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 하듯이, 비숍은 조선을 횡단하면서 상상된 영토를 실체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조선을 재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숍은 조선을 제국의 영토로 전유하면서 제국의 논리를 다양한 위계질서 속에서 구현하고 있다. 이 서사는 제국이 식민지를 포섭하는 방식에 대한 전형을 보여주면서 제국주의를 추동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 4. 결론 : 조선, 기록을 통한 제국적 영역으로의 전유

비숍의 여행기는 낯선 타자와의 조우에 대한 불안감과 신비감, 그리고 시선주체의 인식의 층위를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행지는 풍경을 내면화하는 여행주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표상된다. 그리고 표상의 시선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으

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3)</sup> 근대계몽기 조선은 서양인의 지식체계에서 단순히 그곳에 존재하는 장소와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고 시선의 위계질서 속에 위치한다. 제국주의적인 영토 확장 과 식민화의 과정은 많은 탐험과 탐사, 조사를 통해 수행되었고 많은 여행서를 양산하면서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행서를 통해 드러나는 미지의 영토로써 여행지는 새로운 대상으로 포섭되고, 다양한 방식의 담론을 생산하는 장으로써 변모된다. 다니엘 데퍼트 Daniel Defertsms 는 “유럽이 자신을 세계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세계 변화를 원칙으로 하여 보다 더 많이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에 관해 쓰고, 자신에 관해 읽었다.”<sup>14)</sup>라고 말하며 19세기 영국의 식민지 개척을 위한 여행서사 담론에 대해 평가한 바 있다.

19세기 여행서사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체계의 연장선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미지의 세계를 기지의 세계로 전화시키는 과정에서 제국을 위한 상상된 지도는 여행기를 통해 도시되었고, 이것은 제국의 권력과 영토에 대한 야망·욕망을 충족시키는 서사로 직조되었다. 특히 비숍의 여행기에는 제국의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표상들과 미지의 영토를 제국의 언어로 새롭게 써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번역되는 제국의 담론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비숍은 이 여행기를 통해 탐험과 발견의 대상으로서 조선을 계량화하고 수치화함으로써 미지의 영역을 기지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있다. 따라서 비숍의 여행기는 식민지의 개척과 관련하여 제국주의의에 대한 사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3) 사이토 준이치,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옮김,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14) Mary Louise Pratt, *Travel Narrative and Imperialist Vision, Understanding Narrative*, Ohio State U.P. 1994. p.200.

식민화의 과정이 미지의 영토에 대한 탐험과 지식의 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것은 또한 상징과 메타포, 그리고 표상을 통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강화된 만큼, 여행기의 서사전략은 시선주체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비숍의 여행서사에는 제국주의 시선이 만들어낸 타자와 자아의 이분법적인 구별이 다양한 서술전략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여기에서 여행주체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변주되는 오리엔탈리즘과 제국주의적인 시선은 여행지의 특정 사람과 장소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타자화를 통해 ‘차이’를 공고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여행서사는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 사유를 결핍과 부재라는 인식론을 통해 합리화 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비는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과 필요에 의한 결핍과 부재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논리적 허점을 가진,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서사가 잠재하고 있는 제국주의에 대한 시각은 문명, 인종, 민족, 성적 정체성의 문제를 좀 더 다층적인 위계화의 질서를 통해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비숍의 서술에 의해 구성된 조선은 제국의 헤게모니 속에서 다양한 표상을 통해 환상으로 또는 현실로 전유되고 사유되었지만, 이것은 또한 상상력 밖에서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1994.  
N.G. 가린, 김학수 역, 『조선! 1898년- 저것이 백두산이다 상, 하』, 민족사, 1980.  
프레드 에드워드 존 캐번디시, 조행복 역, 『백두산으로 가는 길』, 살림, 2008.  
H. 언더우드, 신복룡, 최수근 역주, 『상투의 나라』, 집문당, 1999.

### 2. 논문과 단행본

- 이현주외, 『개항기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박지향,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나병철,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2001.  
이효덕, 박성관 옮김,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19쪽.  
와키바야시 미키오, 정선태 역, 『지도의 상상력』, 산치림, 2006.  
데이비드 데이, 이경식 옮김, 『정복자의 법칙』, 휴먼 앤 북스, 2006.  
강상중, 이경로운덕·임성모 옮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7.  
피터 차일드·패트릭 윌리엄스, 김문화 옮김,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317쪽.  
사이트 준이치,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옮김, 『민주적 공공성』, 이음, 2009.  
박지향, 「“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 이사벨라 버드 비숍과 조지 커즌의 동아시아 여행기」, 『안과 밖』10호, 영미문학연구회, 2001, 295-320쪽.  
신문수, 「동방의 타자들 : 이사벨라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한국문화』46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2009, 119-138쪽.  
Boudewijn Walraven, 「내키지 않은 여행자들 - 헨드릭 하멜과 그의 동료들의 관찰에 대한 해석의 변화」, 『대동문화연구』, 제 56집,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 2006. 51-73쪽.  
Mary Louise Pratt, Travel Narrative and Imperialist Vision, Understanding Narrative, Ohio State U.P. 1994.

## Abstract

Between Fantasy and Imperialism of Enlightenment period  
travel-narrative  
-Focus in Isabella Lucy Bishop 『Korea and her neighbours』-

Hong, Sun-Ae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has analyzed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and imperial mode inherent in the sight of travelers with a focus on the book written by Isabella Bishop about her travels during the modern period of enlightenment, and based on the results therefrom, the research also had identified epistemological placement of imperialism by discussing the representation system. Joseon recreated through the otherness is the subject to be improved further and is described as a domain which should be taken into the imperial nation-state, and at the same time it is reproduced as the space for the dissociation of consciousness of imperialist.

Her epic story of travels reveals the hidden side of rationalization of imperialist paradigm through symbols that encode description and development potential which accompany idyllic scene and fantasy. Also, redefining race, ethnic group, and sexual identity through differentiation, this reinforces imperial hegemony by means of inculcating the masculinity of imperial nation-stat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is travel book written by Bishop takes the place of promoting imperial reasons while showing the process of the hierarchy which is the multi-layered of European-style colonial policy. (Key word : travel-narrative, imperialism, representation system, paradigm, rationalization, hegemony, differentiation, race, sexual-identification)

▣ 위 논문은 2010년 04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05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